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37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経済新聞

※ 대상 기간 : 2025.04.17~2025.04.23

①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②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7
▪ 중국	
– 중국, 서비스업 개방 확대 가속화, 9개 신규 도시 시범지역 추가	7
– 중국 국무원, 고용·수출 안정화 통해 고품질 발전 도모	7
– 중국 서부 개발 25년 성과 분석...다각적 발전 지속	8
– 중국 민영기업 5,700만 호 돌파...'4新' 경제 기업 증가세	8
– 중국-캄보디아, QR코드 결제 상호 연동 성공...거래량 급증	9
– 중국 공신부 "AI 기술로 신형 산업화 가속화"	9
– 2025 시안 실크로드 국제관광박람회 개막, 25개국 참여	10
– 중국, 차세대 석탄발전 기술개조 특별행동 추진	11
– 상하이 국제금융허브, 크로스보더 금융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11
– 중국, 국제표준 채택 관리방법 개정, 표준 개방 확대	12
▪ 일본	
– 2040년 생산성 향상으로 '시급 5366엔' 전망, 경제산업성 추계	12
– 트럼프 관세 영향 제로 목표로 하는 히타치... 지속력 시험대	13
– 대만계 반도체 관련 기업의 규슈 유치 지원... 후쿠오카 신거점 개업	13
– 노후화된 상하수도 문제 해결책은 광역화·민영화·분산화	14

- 정책적 혼선 보여주는 가시와자키 가리와, 에너지 안보·탈탄소에 역행 14
- 홋카이도 가미카와 지역 23개 시정촌, 공동사무센터 설치 검토 15
- 후쿠시마 로봇 산업 본격 시동, 원전 폐로·휴머노이드로 세계 일류 목표 15
- 마에바시시, 오카라(콩비지) 원료의 비닐봉투를 지정 쓰레기봉투로 활용 16
- 미야기현의 숙박세 도입 연기, 교외 여관에 배려 16
- CO2 실질 제로의 고평지 원료, 지바현 기업이 상품화 17

■ 라오스

- 라오스, 농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17

■ 캄보디아

- 캄보디아, 2025년 1/4분기 중국과의 무역액 40억 달러 돌파 18
- 캄보디아, 중국과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 18

■ 베트남

- 베트남, 중국과 철도·도로 개발 협정 체결 18
- 베트남, 한국과 2030년까지 무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목표 19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국가전력개발계획(PDP8) 개정 19
- 베트남, 전자상거래 세금 관련 신규 규정 시행 19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시진핑 주석 방문 기간 주요 협력 방안 논의 20
- 말레이시아 SERC, 2025년 GDP 성장을 전망치 4%로 하향 조정 20
- 말레이시아, 2025년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목표 상향 조정 21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 상무부는 다롄 등 9개 도시를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 전자통신·의료 등 14개 핵심 분야에서 155개 시범과제를 추진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형 개방 심화 조치로 평가
- ✓ 중국 국무원은 고용 안정과 수출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비 감면, 직업훈련 보조금 확대, 기업별 맞춤형 수출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7대 정책 패키지를 확정. 수출기업의 내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쌍순환 전략을 가속화하고 정책 집행 효율성 제고를 강조
- ✓ 중국 서부 지역은 개발 전략 시행 25년간 연평균 GDP 9.2% 성장 및 신흥 산업 비중 35% 달성 등 다각적 발전을 달성. 중·러·유럽 열차 운행 확대, 도시 클러스터 육성, 생태 개선과 빈곤 감소 성과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전국 평균 수준의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
- ✓ 중국 신설 민영기업은 20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197.9만호를 기록. 특히 신기술·신산업 등 '4신' 경제 분야 기업과 디지털 경제 관련 기업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정부는 맞춤형 지원과 규제 완화로 민영 경제 활력 제고에 주력
- ✓ 중국 은련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양국 간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완전 상호 연동을 달성. '은섬페이'와 'Bakong' 지갑의 QR코드 결제망 연동으로 2025년 1분기 거래 건수와 금액이 각각 100%, 200% 이상 급증하며 양국 교역 및 관광 편의성이 향상
-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국산 AI 대형모델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 전략을 본격화하여 생산성 향상 성과를 취득. 설계 최적화, 생산 라인 관리 등에

AI를 적용 중이며, 2025년까지 AI 전문 기업 육성 및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 가속화

- ✓ 2025 시안 실크로드 국제관광박람회가 25개국 803개 기업 참여로 개막. '관광+AI'를 주제로 가상현실 체험 등 혁신 기술을 선보였으며, 실크로드 연선 국가 디지털 관광 코스 공개 및 비즈니스 매칭 행사를 통해 중앙 아시아 국가와의 관광 협력 강화에 중점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2025~2027년 석탄발전 기술 고도화 계획 발표 기존 발전소 최소 운전 부하율 하향 조정 및 저탄소 연소·탄소 포집 등 친환경 기술 상용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연계 안정성을 높이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균형 추구
- ✓ 중국인민은행과 상하이시는 외환 거래 심사 기간 단축, 비거주자 M&A 대출 시범 허용 등 18개 조항의 '크로스보더 금융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위안화 국제화 촉진 및 외국계 은행 신용공여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아태 지역 금융 허브 구축을 목표로 설정
-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제표준 채택 관리 방법을 개정하여 ISO·IEC·ITU 표준만을 공식 인정.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전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해관계자 참여 의무화 및 저작권 정책 준수 규정을 통해 WTO/TBT 협정과의 정합성을 제고

○ 일본

-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조 엔 규모의 설비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2040년 명목 시급이 현재의 1.9배인 536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 특히 인력 부족을 겪는 관광, 소매, 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DX 투자를 통한 임금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 히타치제작소는 미국 관세 등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이 부품 조달부터 제품 생산까지 완결하는 '자율분산형 글로벌 경영'을 추진.

이는 6개 지역 공급망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특정 지역 문제 발생 시 전체 기능 마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 대만 경제부는 반도체 관련 기업의 규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후쿠오카에 '대만무역투자센터' 개소 이는 체코 프라하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센터로, 단순 입지 지원을 넘어 투자·자금 조달 및 정보 제공 등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 일본 내 수도관 및 하수관 노후화로 인한 사고 증가와 지자체 재정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화, 민영화(컨세션), 분산형 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 방안 모색이 필요 시설 통합, 효율적 점검 시스템 구축, 요금 인상 등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존재
- ✓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재가동 문제는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탈탄소 정책 목표와 상반되는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정책 등으로 인해 정책적 혼선을 보임. 재가동 지연은 수도권 전기요금 상승과 도쿄 전력 경영 재건에 부정적 영향
- ✓ 일본 홋카이도 가미카와 지역 23개 시정촌은 인구 감소와 공무원 채용난 심화에 따른 행정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공통 사무를 집중 처리하는 '공동사무센터' 설치 검토 5월부터 광역 연계 협의체를 통해 사무 DX, 시설관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 ✓ 일본 후쿠시마현은 국제연구교육기구와 로봇 테스트 필드를 통합하여 로봇 산업 육성을 본격화. 원전 폐로 지원 로봇과 AI·휴머노이드, 드론 연구에 집중하여 세계적 연구 거점을 목표로 하며,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부흥을 가속화할 계획
- ✓ 일본 마에바시시는 식품 가공 부산물인 오카라(콩비지)를 원료로 활용한 식물 유래 플라스틱 비닐봉투를 개발하여 시 지정 쓰레기봉투로 판매 및 사용 시작.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CO2 배출량 저감, 지역 내 자원 순환 촉진을 목표로 설정

- ✓ 일본 미야기현은 당초 2025년 11월 도입 예정이었던 숙박세를 현 교외 지역 여관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6년 1월 1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 이는 가을 성수기 혼란 방지와 사업자 배려 차원으로, 연기로 인해 2025년도 예상 세수는 크게 감소할 전망
- ✓ 일본 지바현 폐지 중개업체 사이토우 에이지 상점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및 J-크레딧 구매를 통해 CO2 배출량을 실질 제로화한 '카본 뉴트럴 골판지' 원료를 개발하여 상품화 추진. 4월 중 제공을 시작하며 고객 기업의 ESG 경영 활동 지원을 목표로 설정

○ 라오스

- ✓ 라오스 농업은 국가 개발 전략에 따라 식량 안보와 청정 생산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GDP의 16% 차지. 쌀, 커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현대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와 기술 도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추세

○ 캄보디아

- ✓ 캄보디아와 중국 간 2025년 1분기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한 40.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대중국 수출 감소와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 양국 FTA가 교역 증대에 기여했지만,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과제를 안게 되는 실정
- ✓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온라인 교육 분야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 성장을 추진. 이는 정부의 오각전략 일환으로, 2025년 전자상거래 매출 17.8억 달러 달성을 전망

○ 베트남

- ✓ 베트남과 중국은 시진핑 주석 방문 계기에 양국 간 철도 및 도로 인프라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다수의 협정 체결. 초국경 철도 사업 가속화와 국경 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양국 간 무역 촉진 및 물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설정
- ✓ 베트남과 한국은 제13차 산업 공동위원회 및 제7차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해 무역 투자 촉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 베트남 정부는 GDP 성장을 지원하고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 개정안 승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8.36%, 2050년 74.75%까지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력 수출 능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
- ✓ 베트남은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세금 규정을 시행.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판매자 정보를 확인·제공 의무를 수행, 이는 조세 투명성 제고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의 중요 노력

○ 말레이시아

- ✓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독립성 유지, 고위급 소통 강화 등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 또한 양국 발전 전략 연계, 디지털·친환경 경제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증진 방안에 합의
- ✓ 말레이시아 사회경제연구센터(SERC)는 미국의 잠재적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를 이유로 2025년 말레이시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에서 4%로 하향 조정. 특히 최대 수출품인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둔화 가능성 우려

- ✓ 말레이시아는 '2026년 방문의 해' 캠페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목표를 2025년 430만 명, 2026년 470만 명으로 상향 조정.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항공 연결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맞춤형 관광 상품을 제공할 계획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서비스업 개방 확대 가속화, 9개 신규 도시 시범지역 추가 - 중국 상무부가 대련·닝보·샤먼 등 9개 신규 도시를 서비스업 개방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전국적 확대 시행. 전자통신·디지털 산업·의료 등 14개 핵심 분야에서 155개 시범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 개방 조치 추진. 주요 정부 부처의 서비스업 관련 혁신 정책은 시범지역에서 우선 시험 적용 - 새로 발표된 시범 과제 목록에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 국제 의료 서비스 협력, 금융 시장 개방 등이 포함.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위험도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적용할 계획. 상무부는 “시범지역의 선도적 역할 강화로 서비스업 개방 속도 가속화”라고 밝힘 - 이번 조치는 중국의 제도형 개방(制度型开放) 심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 특히 R&D 중심 도시인 허페이·시안 등이 포함되면서 기술 집약적 서비스업 개방에 주목
	○ 중국 국무원, 고용·수출 안정화 통해 고품질 발전 도모 - 중국 국무원이 4월 18일 정례회의에서 고용 안정과 수출 증진을 위한 7대 정책 패키지 확정. 1분기 도시 실업률 5.2%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청년층·전통 산업 종사자 대상 추가 지원 필요성 강조. 기업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비 감면·직업훈련 보조금 확대 등 실질적 방안 마련 - 수출 부문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업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一业一策·一企一策”) 강화. 장쑤성·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광둥성 등 주요 수출기지에 무역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1분기 무역액 10.3조 위안 기록하며 안정세 유지 - 내수 시장 연계를 위해 수출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 지원. 대형 유통기업과 수출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쌍순환(双循环)” 전략 가속화. 국무원은 “정책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민생에 직접 도달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
	○ 중국 서부 개발 25년 성과 분석...다각적 발전 지속 - 시안에서 발표된 《중국 서부 경제 발전 보고서(2025)》에 따르면, 서부 지역 GDP가 개발 전략 시행 25년간 연평균 9.2% 성장. 청정에너지·전자정보 등 신흥 산업이 전체 산업 구조에서 35% 점유하며 성장 동력으로 부상. 특히 쓰촨성의 전자제품 제조업과 윈난성의 바이오의약 산업이 두각 - 인프라 측면에서는 중러유럽 열차(中欧班列) 동·중·서 3개 노선이 연간 2만 회 이상 운행하며 교역 활성화. 관중평야(关中平原) 도시군·청두-충칭 경제권 등 5대 도시 클러스터가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 12개 국경 경제협력구가 대외개방의 전초기지로 기능 - 생태 개선과 빈곤 감소에서도 뚜렷한 성과. 사막화 면적이 5년 연속 감소했으며 3,500만 농촌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 보고서는 “2035년까지 서부의 현대화 수준을 전국 평균에 근접시키는 것”을 향후 목표로 제시. 학계는 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특색 발전 모델 구축 필요성 강조
	○ 중국 민영기업 5,700만 호 돌파...‘4新’ 경제 기업 증가세 - 2025년 1분기 중국 신설 민영기업이 197.9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특히 신기술·신산업·신업체·신모델을 포함한 ‘4新(사신)’ 경제 분야 기업이 전체의 42.3% 차지. 인터넷 및 IT 서비스 기업은 18% 성장률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디지털 경제 관련 신설 기업은 27.4만 호로, 이 중 디지털 제품 서비스 업체가 전년 대비 2.5배 급증. 3월 말 기준 '4新' 경제 민영기업 누적 2,267.8만 호로 전체 기업의 39.8%를 차지. 인공지능·첨단장비·양자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기업 설립이 활발 - 개인사업자도 1분기 394.9만 호 신규 등록되며 서비스업 중심(88.5%)의 성장 지속. 정부는 생존형·성장형·발전형으로 기업을 분류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 중.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민영 경제의 활력 제고에 주력
	○ 중국-캄보디아, QR코드 결제 상호 연동 성공...거래량 급증 - 중국 은련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개발한 양국간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완전 상호 연동을 달성. 중국의 '은섬페이'와 캄보디아 'Bakong' 지갑이 서로의 QR코드 결제망에 접속 가능해짐. 2025년 1분기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100% 이상, 금액은 200% 이상 증가 - 이 시스템은 2023년 11월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추진. 중국 내 200여개 은행 앱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KHQR 표준으로 결제 가능하며, 반대로 캄보디아 사용자도 중국 내 식당·백화점 등에서 자국 앱으로 결제 가능 - 특히 관광 분야에서의 이용이 활발해지며 양국 간 교역·관광 편의성 대폭 향상. 중국은 2008년부터 캄보디아에서 30만 장 이상의 은련카드를 발급하며 현지 금융 인프라 구축에 기여. 전문가들은 “동남아 금융 연결성 강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
	○ 중국 공신부 “AI 기술로 신형 산업화 가속화” -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국산 AI 대형모델(LLM)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 전략을 본격화. DeepSeek 등 국내 개발 모델이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며 기술력 입증. 전자·원자재·소비재 업종에서 AI를 활용한 생산성 평균 30% 이상 향상 사례 다수 발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주요 적용 분야로는 설계 최적화(24.7%), 생산 라인 관리(33.1%), 품질 검사(18.5%) 등이 포함. 베이징 한 디스플레이 기업은 AI 배치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 계획 수립 시간을 75% 단축. 산업용 로봇의 경우 작업 정밀도가 0.01mm 수준까지 향상되는 성과 취득 - 정부는 2025년까지 AI 전문 '小巨人(소거인)' 기업을 500개사로 확대할 계획. 표준 데이터셋 구축과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연간 120억 위안(약 2.2조 원)을 투자. 특히 반도체·신에너지차 등 전략적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
	○ 2025 시안 실크로드 국제관광박람회 개막, 25개국 참여 - 4월 18일 시안에서 개막된 2025 실크로드 국제관광박람회에 터키, 카자흐스탄 등 25개국 803개 기업 참가. '관광+AI'를 주제로 한 혁신 전시관에서 가상현실(VR) 기반 문화유산 체험, AI 맞춤형 여행 플래너 등 최신 기술 적용 사례 선보임. 박람회 총면적 3.6만㎡에 교류협력·산업융합·소비체험 3개 전시관 운영 - 산업융합관에서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여행 서비스 등 120여개 신기술 제품 전시. 실크로드 연선 국가들을 연결한 디지털 관광 코스와 '실버 관광' 전용 패키지 상품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음. 박람회 기간 중 100여개 글로벌 여행사가 참여한 비즈니스 매칭 행사도 동시 진행 - 2014년 시작 이후 70여개국 2,900억 위안(약 53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킨 실적을 보유. 금년에는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광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며, 실크로드 문화유산을 활용한 12개 테마 관광루트를 새롭게 공개. 주최측은 “기술융합을 통한 관광 산업의 질적 도약 기회”로 평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차세대 석탄발전 기술개조 특별행동 추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2025~2027년 석탄발전 기술 고도화 계획을 발표. 기존 발전소의 최소 운전 부하율을 25~40%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로, 신규 플랜트는 25% 미만 달성을 의무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연계 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총 21개 세부 과제 중 12개는 친환경 개조 기술 개발에 집중. 저탄소 연소·탄소 포집(CCUS)·하이브리드 발전 등 7개 핵심 기술을 2027년까지 상용화할 계획. 특히 전력 수요가 급변하는 지역에 30기 이상의 초급속 출력 조절이 가능한 시범 플랜트를 건설 -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세제 감면·그린 본드 발행 등 재정 지원을 확대. 2025년 첫 해에만 180억 위안(약 3.3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화톈(华电)·귀톈(国电) 등 주요 에너지 기업 15개사가 참여.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균형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고 평가
	○ 상하이 국제금융허브, 크로스보더 금융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 중국인민은행과 상하이시 정부가 '크로스보더 금융 서비스 개선 방안' 18조를 공동 발표.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외환 거래 심사 절차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4개 시범 은행(中国银行·中信银行 등)에 한해 비거주자 대상 M&A 대출 서비스 허용. 대출 한도는 거래액의 80%·기간 10년 이내로 설정 -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재할인 창구(再贴现窗口) 시범 운영. 수출기업의 위안화 무역 금융 비용을 0.5~1.5%p 절감하는 것이 목표. 특히 대형 장비·신에너지차 수출 시 보험 공동체(保险共同体)를 구성해 특수 리스크 커버리지를 확대 - 2025년 상반기 중 외국계 은행 10개사의 중국 내 법인에 대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보다 25% 상향 조정.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해외 기업의 위안화 채권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장벽 완화에 박차. 금융당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크로스보더 결제 허브 구축”을 최종 비전으로 제시
	○ 중국, 국제표준 채택 관리방법 개정, 표준 개방 확대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국제표준 채택 관리방법'에서 ISO·IEC·ITU 3개 기구의 표준만을 공식 인정하기로 확정. 기존 49개 다른 국제기구 표준은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도록 조정. 2025년까지 중국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전환률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목표 - 개정안은 표준 제정 과정에 소비자 단체·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의무화. 특허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제표준 채택 시 원본 저작권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 중국표준화연구원은 주요 1,200개 국제표준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2026년까지 완비할 계획 - 이번 조치는 WTO/TBT(기술장벽)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계·전자 분야 수출 기업의 기술 규격 적합 비용을 15~20% 절감할 전망. 중국은 연내 30개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지침을 마련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 지원을 강화할 방침
일본	○ 2040년 생산성 향상으로 '시급 5366엔' 전망, 경제산업성 추계 - 일본 경제산업성의 2040년 산업구조 비전은 기업 성장 투자를 통한 임금 상승 전망. 명목 임금은 시간당 2040년에 5366엔으로 현재의 1.9배 증가 추산. 200조 엔 설비 투자로 국내 산업 구조 전환과 생산성 향상 기대 - 경제산업성과 경제산업연구소 공동 모델에 따르면 2021년 명목 임금은 산업 평균 시간당 2885엔. 200조 엔 투자 시 연간 3.3% 상승해 2040년 5366엔 도달. 고성장과 물가 상승 예상되나 투자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현상유지 시 3800엔에 그칠 전망 - 임금 상승 주도 분야는 관광, 소매·도매, 의료·개호 등 서비스업. 인력 부족 서비스업은 DX와 인력 절감 투자로 생산성 향상 예상. 실질 기준으로는 산업 평균 3702엔, 현재보다 28% 증가 전망
	○ 트럼프 관세 영향 제로 목표로 하는 히타치... 지속력 시험대 - 트럼프 관세로 혼란 속 히타치제작소는 '자율분산형 글로벌 경영' 방식 모색. 이는 각 지역이 부품·제품 조달을 경계 넘지 않고 완결하는 지산지소 개념으로, 6개 지역에서 공급망 독립성 강화 - 미중 간 물자 교류가 적어 미국 관세나 중국 대항 조치 영향 최소화. 한 지역 이상 발생 시 나머지 지역에서 사업 계속하여 전체 기능 마비 방지. 코로나 공급망 혼란 시 이 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 - 외교 전략은 국경선과 기업 공급망 유도를 포함하게 됨. 일본 기업은 해외 경영자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 부족이 과제. 히타치의 동하라 회장은 “최악 상황 대비 필요”하며 “중국 리 총리와 매년 만나 관계 유지” 중이라 언급
	○ 대만계 반도체 관련 기업의 규슈 유치 지원.. 후쿠오카 신거점 개업 - 대만 경제부는 4월 21일 대만 기업 일본 진출 지원 조직 '대만 무역투자센터' 개소식을 후쿠오카에서 개최. 이 거점은 반도체 관련 기업의 규슈 유치 지원 목적으로, 체코 프라하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센터 - 대만무역투자센터는 첨단 산업 관련 대만 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 단순 입지 지원 넘어 투자·자금 지원과 정보 제공도 담당. 반도체 사용 AI나 드론 산업 지원도 포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세계 첫 투자센터는 2024년 12월 체코에 개설. 후쿠오카 거점은 대만무역센터 사무소 기능 확충 형태로 운영 예정. 반도체 관련 관세 영향으로 대만 기업의 일본 진출에 역풍 우려되나 신속한 대응 필요
	○ 노후화된 상하수도 문제 해결책은 광역화·민영화·분산화 - 사이타마현 야시오시 하수도 파손으로 도로 함몰 사고 발생, 상하수도 노후화 해결책 모색. 2022년 전국 수도관 사고 약 2만 건, 하수도 도로 함몰 약 2600건. 내용연수 초과 수도관 22%, 하수관 7%로 급증 예상 - 관로 노후화 진행되며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 재정도 악화, 전국 12% 적자. 원인은 인구 감소와 절수기기 보급으로 사용량 감소 효율적 점검과 요금 인상 불가피, 2024년 170개 이상 지자체가 요금 인상 - 인구 감소 고려하면 요금 인상에 한계 있어 광역화, 민영화, 분산화 필요. 광역화로 시설 통폐합 비용 절감과 인력 확보 가능. 민영화는 컨세션 방식, 분산화는 각 주택 소규모 수순환 시스템 등 시도 중
	○ 정책적 혼선 보여주는 가시와자키 가리와, 에너지 안보·탈탄소에 역행 -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재가동 가부는 수도권 전기 요금과 도쿄전력HD 재건 좌우.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탈탄소 추진 내세우나 정책 일관성 부족. 원전 재가동 지연으로 전기요금 간사이·규슈보다 1~2할 높음 - 정부는 2월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최대한 활용' 명시했으나 실제론 역행 정책 지속. 대표적으로 2023년 시작된 전기·가스 보조금이 연장·재개 반복, 누계 4.3조 엔 투입. 이는 산업 육성이나 기술 혁신보다 화석연료 사용 촉진하여 탈탄소 역행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재가동은 도쿄전력 수익 개선 핵심. 재가동 없으면 2025년도 현금예금이 필요 방어선 3000억 엔 밑돌 가능성. 1기 가동으로 경상이익 연간 1000억 엔 개선 예상되는 중요 사안
	○ 홋카이도 가미카와 지역 23개 시정촌, 공동사무센터 설치 검토 - 홋카이도 가미카와 지역 23개 시정촌이 '공동사무센터' 설치 검토. 공통 사무 집중 처리로 행정 기능 저하 방지 목적, 5월 부터 본격 논의 예정. 2월에 광역 연계 협의체 '가미카와 관내 지역 연계·공창 추진회의' 출범 - 가미카와 관내 인구는 약 47만 명으로, 60~80년대 50만 명대에서 저출산·고령화로 감소. 직원 확보 어려워져 채용시험 경쟁률 2014년 4.25배에서 2024년 2.81배로 하락. 특히 보건사 6개 정촌, 토목직 5개 정촌, 보육교사 3개 정촌 결원 심각 - 추진회의에서 자치체 업무 분석·정리하여 공통 사무 집중 처리 구조 검토. 사무 DX, 혁신, 시설관리 3개 분야 협력 체제 구축 목표. 각 분야 추진부회 설치하여 월 2회 논의하고 전담 담당자 배치 계획
	○ 후쿠시마 로봇 산업 본격 시동, 원전 폐로·휴머노이드로 세계 일류 목표 - 후쿠시마현 로봇 산업 본격 시동. 후쿠시마 국제연구교육기구와 '후쿠시마 로봇 테스트 필드'가 4월 1일 통합. 원전 폐로, AI·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연구로 세계 일류 목표. 지역 기업 연계로 대지진 부흥 가속화 추진 - 야마자키 이사장은 “유럽·미국·중국과 겨루는 로봇 연구 거점 될 것” 강조. 통합으로 기초연구부터 실용화·표준화까지 일관 연구하는 전국 첫 시설 탄생. 로봇 테스트 필드는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 중심 시설로 2020년 개설 - 야마자키 이사장은 “후쿠시마 부흥엔 폐로 실현 필수” 강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사고 직후 국산 로봇을 원전에 투입 못했던 경험 있음. 휴머노이드 분야는 유럽·미국·중국에 뒤쳐진 일본 경쟁력 향상 목표. 기초연구부터 실용화·표준화까지 담당하는 로봇·드론 연구 국가센터 지향
	○ 마에바시시, 오키라(콩비지) 원료의 비닐봉투를 지정 쓰레기봉투로 활용 - 마에바시시에서 '오키라' 활용 플라스틱 원료 비닐봉투 판매 시작. 시 지정 쓰레기봉투로도 사용 가능. 마에바시시, 사가미야식료, 이노우에 비닐, 베이시아, 카인즈가 실증실험으로 1만 장 판매 시작 - 사가미야의 '토후레진' 원료 사용, 이노우에 비닐과 함께 개발한 봉투를 시내 베이시아·카인즈 매장에서 판매. 20리터 봉투 1장 7엔, 생 오키라 1.2그램 사용. 기존 비닐봉투보다 열기 쉬운 장점 있음 - 오가와 시장은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로 CO2 감축 연결, 시내 자원 순환 노력 알리고 싶다” 언급. 시는 2024년 10월 베이시아·카인즈와 지역 과제 해결 위한 포괄적 연계 협정 체결, 지역 자원 순환 실천 사례
	○ 미야기현의 숙박세 도입 연기, 교외 여관에 배려 - 미야기현은 4월 21일 상임위에서 숙박세 도입 시기를 2026년 1월 13일로 공식 발표. 기존 2025년 11월 예정에서 연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세입 감소 보완 위한 조치였으나 혜택 적은 현 교외 여관업자 배려한 결정 - 오노데라 총무부장은 “동북지방 인바운드 뒤흔들. 상황 개선 위해 숙박세 도입 조속 진행 필요” 강조. “가을 성수기 피해 달라는 요청 있어 혼란 피하고 숙박객 안정되는 1월 13일부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시행“ 설명하며 숙박사업자 배려 강조 - 숙박세는 1인 1박 6000엔 이상 숙박자에게 과세. 센다이시내는 현 100엔·시 200엔, 그 외 지역은 현이 300엔 징수. 연기로 2025년도 세수는 1.2억 엔에 그칠 전망으로, 당초 예상했던 3.7억 엔의 1/3로 감소
	○ CO2 실질 제로의 골판지 원료, 지바현 기업이 상품화 - 사이토우 에이지 상점이 CO2 배출량 실질 제로화한 '카본 뉴트럴 골판지' 원료 4월 중 제공 시작. 공급망 탈탄소화, ESG 활동 연결점 강조하며 고객 기업들에게 어필 계획 - 이 업체는 사업자로부터 골판지 등 폐지 회수해 공장에서 압축 후 제지회사에 도매하는 폐지 중개업체.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지게차 EV화 등으로 폐지 회수·압축 과정 CO2 배출량 억제 접근 - 남은 CO2 배출량은 기업 CO2 감축분을 국가 인증하는 'J-크레디트' 구매로 상쇄. 사이토우 에이지 상점은 폐지 회수 외에도 의류·플라스틱 등 폐기물 리사이클 사업 전개 중
라오스	○ 라오스, 농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 라오스 농업은 '2025년 농업개발전략'과 '2030년 녹색·지속가능 농업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식량 안보, 청정 생산, 기후 회복력 중심의 성장세 보임. 2024년 기준 GDP의 16% 차지 - 2024년 쌀 생산량 350만 톤, 베트남과 태국 수출액 1.5억 달러 기록. 라오스 커피는 유럽·미국에서 인기로 1억 달러 수출. 옥수수 120만 톤 생산해 태국·중국 수출로 8,000만 달러 수익 창출 - 외국인투자자들은 FDI, 협동조합 파트너십, 민관협력, 토지 양허로 투자 추진. 농업 부문은 관개 기술, 농기계, 디지털 플랫폼, 콜드체인 등 현대화 수요 증가 중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 캄보디아, 2025년 1/4분기 중국과의 무역액 40억 달러 돌파 - 캄보디아-중국 무역액 2025년 1분기 4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 對중국 수출은 3.48억 달러로 4.9% 감소, 수입은 37.2억 달러로 30.8% 증가 - 캄보디아-중국 자유무역협정(CCFTA) 이행으로 무역액 증가와 경제협력 확대. 양국은 개발, 자원 공유, 안보, 문화 교류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중 - 캄보디아의 對중국 무역흑자는 낮은 생산비용에 기인하나 원자재 수입 의존도 높음. 경제 안정화를 위해 필수 원자재 국내 생산 투자 확대와 대체 무역 경로 모색 필요
	○ 캄보디아, 중국과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 - 캄보디아는 2024년 12월부터 중국 디지털 부문 협력으로 경제 성장 가속화.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 온라인 쇼핑 편의성 개선 - 중국 기업들은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온라인 교육 등 투자 추진. 중국식 전자상거래 모델과 현지화 전략이 캄보디아 내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음 - 캄보디아 정부는 오각전략 일환으로 디지털 발전 추진, 2025년 전자상거래 매출 17.8억 달러 전망. 중국은 일대일로 중심 협력 강화, 디지털 경제를 핵심 분야로 지목
베트남	○ 베트남, 중국과 철도·도로 개발 협정 체결 - 시진핑 주석 베트남 방문 중 양국은 철도·도로 협력 문서 서명. 정부 간 조약 2건, ODA 협정 2건, 장관급 협정 3건 체결 - 양국은 철도협력위원회 설립 MOU 등 초국경 철도 사업 가속화 4개 협약 체결.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노선 조사계획과 기술 지원 협정도 포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 도로 분야에선 탄투이-텐바오 국경 관문 초국경 인프라 정부 간 협정 등 3건 체결. 베트남 하장성-중국 윈난성 무역 촉진, 물류 개선, 건설 협력 증진 목표
	○ 베트남, 한국과 2030년까지 무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목표 -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노이서 양국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위원회 공동 주재. 2030년까지 무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방안 논의 - 양국은 '베트남 내 코리아 플러스'와 '한국 내 베트남 플러스' 태스크포스 강화 합의.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운영과 VITASK 2 프로젝트 2단계 추진도 합의 - 전력, 석유·가스, LNG, 원자력,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합의. 베트남은 한국의 LNG·석유가스 투자 긍정 평가. 무역액 달성 계획과 에너지 협력 MoU 서명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국가전력개발계획(PDP8) 개정 - 베트남 부총리,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 개정 결의안 제768호 승인. GDP 성장 지원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중점 둔 개정안 - 2030년까지 전력 생산 283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2050년까지 7475%로 확대 계획. 2030년까지 전력 생산·송전·소비 중심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서비스 지역센터 2개 개발 추진 - 2035년까지 5천1만MW 전력 수출 능력 확보로 역내 신재생 에너지 수출 확대 계획. 202630년 1,363억 달러, 203135년 1,300억 달러, 203650년 5,691억 달러 투자 예정
	○ 베트남, 전자상거래 세금 관련 신규 규정 시행 - 베트남,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세금 관련 신규 규정 시행.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한 세금 납부 보장 위한 조치로, 조세 체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현대화와 디지털 사업자 공식 경제권 통합 전략의 일환 - 신규정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은 판매자 신원 불분명 시 지급 전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 각 5% 원천징수 의무. 판매자 세금 식별번호 수집·확인과 연간 전자 원천징수 증명서 발급도 필요 - 디지털 경제 내 탈세 감소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목표. 업계는 기본 회계 시스템 부족한 영세 판매자들의 규정 이행 어려움 우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시진핑 주석 방문 기간 주요 협력 방안 논의 - 시진핑 주석, 안와르 총리와 회담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3대 제안 발표. 전략적 독립성 유지, 고위급 전략 조정 강화, 국가 주권·발전 이익 상호 지지 포함 - 중국 현대화 목표와 말레이시아 마다니 경제 이니셔티브 연계 강조. 디지털, 친환경, 해양 경제, AI 등 핵심 분야 협력 확대와 산업, 공급, 가치, 데이터 분야 협력 강화 제안 - 상호 비자면제 협정 활용한 관광·청년·지방정부 교류 증진 제안. 문화, 교육, 스포츠, 영화, 미디어 협력으로 인적 유대 강화 촉구 ○ 말레이시아 SERC,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 4%로 하향 조정 - 말레이시아 사회경제연구센터,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이유로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 5%에서 4%로 하향 조정.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강조 - 최대 수출품 전기·전자 제품 관세 우려로 수출 증가율 8.5%에서 3%로 둔화 전망. 수출 둔화가 소득·고용·소비 부정적 영향 예상돼 민간소비 증가율도 5.1%에서 4.4%로 하락 예상 - 연료 보조금 합리화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으로 2025년 물가 상승률 2.5~3% 전망. 링깃화는 미 달러 대비 안정세 유지 예상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2025년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목표 상향 조정 - 말레이시아, '2026년 방문의 해' 캠페인으로 2025년 430만 명, 2026년 470만 명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목표. 관광청은 인도네시아가 제2 관광객 송출국임 강조 - 인도네시아와 항공 연결성 강화해 주 591편 직항 운영. 국제선·전세기 매칭 보조금과 MICE 인센티브 등 부가가치 패키지 제공 - 인도네시아 관광객 대상 의료관광 패키지 홍보. 말레이시아 슈퍼세일 등 행사와 테마파크, 음식 관광, 쇼핑 명소 등 다양한 관광 상품 홍보 중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